

해양관광 중심지로 각광

고군산군도 일원서 '섬의 날' 정부기념행사 유치

전북도가 2021년 '제3회 섬의 날' 정부기념행사 유치를 성공했다. 전북도는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8월 8일 섬의 날 세 번째 정부기념행사인 2021년 '제3회 섬의 날' 행사를 유치해 2021년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(GSCO) 및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.

'섬의 날' 행사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도서개발 촉진법이 2018년도에 개정되어 매년 행안부가 주최하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추진 중이다.

제1회 섬의 날 행사는 전남 목포시·신안군 일원에서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10일 3일간 개최돼 15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.

전북도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제3회 섬의 날 행사에 고군산군도 등이 위치한 군산지역으로 신

청해 현장실사 및 PT 심사를 거쳐 다른 3곳과 경합을 벌인 결과 행사 개최예정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.

도의 이번 섬의 날 행사 유치는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 이후 행안부가 제2회 및 제3회 행사 개최예정지를 함께 공모함에 따라 호남권인 전남도가 제1회 행사를 개최한 것과 우리도 유인도서 보유수가 전국 5번째인 것을 고려해 제2회 행사유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제3회 섬의 날 행사를 신청한 전라이 빛을 받았다.

특히, 무더위나 태풍,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과 관계없이 실내행사 개최가 가능한 점과 고군산군도 일원서 지역 공동체인 어촌계와 함께하는 다양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마련, 전국행사 경험 등이 주요했다.

군산컨벤션센터 및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개최될 제3회 섬의 날 행사는 크게 페스티벌존과 레저파크존, 관광

체험존으로 구성된다.

주 행사장인 페스티벌존에서는 기념식 행사와 섬지역 먹거리 체험, 글짓기 대회, 합창대회, 실의 물놀이장 등 부대행사가 진행되고 레저파크존에서는 정부기관 및 전국 지자체에서 섬 및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이 운영되고 캠핑, 낚시, 트래킹 등 다양한 상품을 전시하기 위한 오토레저캠핑 박람회도 함께 진행된다.

관광체험존은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진행되는 지역공동체인 어촌계와 함께 트래킹 체험, 낚시 체험, 바지락 캐기, 오토캠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.

도 관계자는 "섬의 날 유치를 우리도 섬 해양자원의 인지도 및 브랜드가 상승되어 명품 관광지로 조성 중인 고군산군도 및 새만금 주변 섬이 해양관광지의 중심으로 육성될 것"이라며, "2021년 프레젠테이션 행사와 연계하여 행사가 추진될 수 있어 행사기간 새만금 썰매리 붙임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 /김진성 기자



6일 완주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9 전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홍영근 소방본부장, 박성일 완주군수 및 도의원, 군의원, 의용소방대원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안전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.

모두의 안전 책임지는 안전과수꾼으로!

전북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성료

전북도는 도내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기술 연마를 통한 재난대비 역 할 강화와 소통·화합을 위한 제12회 전북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대회는 지난 독도 헬기 추락 사고를 애도하는 가운데 이루어 졌 으며, 강한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

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의용소방 대원들의 초동 대처능력을 기르고, 소방현장의 특성상 단합력을 높여 유사시 유기적으로 대응하고, 각 지 역 이웃들에게 안전문화를 확산시키 는데 의의가 있다.

이번 기술 경연대회는 송하진 도지 사를 비롯 홍영근 소방본부장, 박성

일 완주군수 및 도의원, 군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각 지역별 시·읍·면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해 약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연을 펼쳤다.

송하진 도지사는 "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더욱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각 지역 이웃들에게 안전을 알리는 파수꾼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"고 전했다. /김진성 기자

전북도, 대학생 공기관 인턴십 15일까지 모집

전북도는 2020년 상반기(1~2월) 7 주간의 공기관 직무인턴 프로그램 참여자 130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 한다고 6일 밝혔다.

지원자격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생으로 11 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 하여야 하며, 1차 서류심사(자격요건 및 기본소양 적격여부 심사) 후 2차 공개추첨에 의해 선발된다.

이번에 모집하는 인턴(130명)은 도 내 국가기관, 전북도 직속기관 및 출 연기관에 배치된다. 이들은 연구기관 의 연구자료 조사 및 실험 보조, 행정업무 보조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하게 된다.

특히 올해는 한국과기원 복합소재 연구소, 안전성평가 연구소 영장류시

험본부, 한국산업기술시험원(태양광) 등 국가 연구기관 9개 기관이 새롭게 참여하여 우리도 이공계 대학생들의 국가연구소 직무체험의 기회가 넓어 지게 되었다.

또한 행정업무 보조 등 전공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한 인턴(52명)과 인 문·상경계열 인턴(20명)을 별도로 모집한다. 따라서 전체 모집인원(130 명)은 2019년(100명)에 비해 크게 늘 어났다.

전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전국 어느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어도 참여가 가능하며, 전공과 출퇴근 가능지역을 참고하여 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지원 할 수 있 다.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은 전라북 도 홈페이지(알림마당)공고/고

시)(www.jeonbuk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최종합격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공개추첨을 거쳐 12월 6일에 발표되 며, 최종 선발된 학생은 12월 30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2020년 1월 6일 부터 2월 21일(7주, 33일간)까지 배 정된 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해야 한 다.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 북도 일자리정책관실 청년정책팀 (063-280-3215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신원식 도 일자리정책관은 "전북도 대학생들이 도내 연구기관 등 공 기관에서 직장생활의 경험을 쌓고 취 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 은 기회"라며 "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도 학생들이 우리지역의 이해를 넓히고 유능한 인재가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 다"고 말했다. /김진성 기자

새로운 경제활동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UP

전북도,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

전북도가 이미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 스 등 유형·무형의 자원을 여러 사람 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, 즉 '나눠쓰 기' 운동과 마찬가지로 '공유경제' 활 성화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.

도는 6일 오후 2시 도청 중회의실에 서 공유경제 도내의 전문가 15명이 참 석한 가운데 '전북도 공유자산 실태조 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 역' 중간보고회를 가졌다.

이날 중간보고회는 '공유경제 도민의 식,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, 정책방향 과 추진전략' 등의 연구결과에 대해 중간점검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, 보완할 예정이다.

전북도는 공유경제가 활용하지 않는 물건·공간·지식·경험·시간 등의 유·무형 자원을 대여와 교환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경제활 동 방식으로 자원의 사용가치를 높여 경제적 이익과 환경문제 등의 사회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미 지난 2017년 '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'를 제정, 공유경제 정책추 진 근거를 마련했었다.

도는 또 오는 12월까지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공유경제 정책목표, 정책 방향, 추진전략, 세부사업, 재정계획 등 '공유경제 기본계획'을 수립해 공유경 제 1단계 정책기반을 완성한다는 방침 이다.

현재 전북도민(904명)의 공유경제 의 식조사를 통해 도민의 공유경제 의향 과 태도, 공유정책 활성화 정책 의견 등의 분석을 마쳤고 도내 공공기관, 출 연·출자기관, 농협·축협, 수협, 우체 국 (686개소)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가 능 자원과 도내 공유단체·기업 등의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 는 상태이다.

전북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'공유경제 시범마을'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.

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'마을 단위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공 유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 델'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개소 조성 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도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공모를 통 해 부안군 (유)꼬마농부팜의 농기계

공유 '청춘드레 사업'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 2억2000만원(도비 4800만원, 군 비 1억1200만원, 자부담 6000만원)을 지원하고 있다.

'청춘드레 사업'은 부안군 계화면을 중심으로 '공급자'인 청년 농업인(15 명)의 트랙터, 이앙기 등 농기계(30여 대)를 '수요자'인 고령 농업인(30여 농 가, 농지 110ha)을 연결하는 농기계 공 유 비즈니스 모델이다.

올 가을 수확시기 6명의 청년농업인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60ha(120필지) 규모의 농기계 작업을 하여 3600만원 의 매출을 올렸으며, 수확 이후 겨울작 물 파종을 위해 준비 중이다.

농기계 공유 '청춘드레 사업'은 고령 화된 농촌에서 청년농업인의 농기계 공 유를 통해 농작업 문제를 해결하고, 경 제적 이익은 물론 농촌마을의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.

부안군과 (유)꼬마농부팜은 청년농업 인의 농기계 활용과 소득향상에 기여 하고, 고령농업인에게는 수월한 농작 업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 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군지 역 전역으로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.

한편 (유)꼬마농부팜은 농기계 공유 활동으로 수확한 쌀은 계약판매 등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에 도 기여하고 있다. /김진성 기자

전북국제교류센터, 블라디보스톡에 '전북의 맛' 전파

전북도국제교류센터(센터장 이영 호)는 러시아 연해주와 민간교류 활 성화를 위해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 톱 국립경제서비스대학에서 극동경 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 북도 음식체험 페스티벌(Jeollabuk-do Cuisine Festival)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한국과 인접 하다는 장점과 더불어, 유라시아의

역사·문화 등 교류의 중심지로 성 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.

이에, 도 국제교류센터는 지난 9월 우수리스크 민중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이번 블라디보스톡국립 극동경제서비스 대학 극동경제연구 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연해 주 지역과의 활발한 민간교류 분야 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
국제교류센터는 이날 블라디보스톡 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식명인이 직접 순창 고추장 등 전북의 재료로 비빔밥, 잡채, 궁중 떡볶이 등을 선 보이며 전라북도의 맛과 문화를 알 리는 시간을 가졌다.

이영호 센터장은 "향후 러시아 지 역의 활발한 민간교류와 더불어 더 욱 많은 현지인이 전북도의 우수한 음식과 전통문화를 기억하고, 전북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"고 밝혔다. /김진성 기자

“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”

전주매일의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립니다.

전주대학교

JEONJU UNIVERSITY

총장 이호인

구독·광고문의: 063-288-9700

www.jjmaeil.com